

KWDI 이슈페이퍼

수행과제명 젠더 관점에서의 고령사회 가족 관련 법·제도 대응 방안 연구: 배우자 관계의 변화와 여성 노인의 경제적 취약성을 중심으로
과제책임자 송효진 연구위원 (Tel: 02-3156-7094 / E-mail: hjsong@kwidimail.re.kr)

고령 여성의 목소리로 들어본 노년의 비혼동거, 그리고 정책적 함의

초록

- 고령화와 가족변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우리 사회에서, 법률혼 제도 밖에서 노년의 삶을 함께하는 비혼동거 당사자, 특히 고령 여성의 목소리를 통해 그들의 노년의 파트너 관계와 삶의 경험을 들어보고 정책적 함의를 살펴보고자 하였음.
- 노년의 비혼동거하는 삶은 관계에 있어서 다양한 스펙트럼으로 나타나고, 그 사유도 다양하고 복합적임. 연구참여자들은 결혼하지 않고서 노년에 파트너와 함께 하는 삶의 긍정적인 영향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사회의 편견적인 인식으로 관계를 드러내지 못하는 점, 제도적으로 보장이나 지원이 되지 않는 불안정성으로 인한 노후의 불안을 살펴볼 수 있었으며, 그리고 경제적으로 높은 가족의존성, 개인이 부담하기 어려운 돌봄의 문제라는 고령 여성이 경험하는 주요 이슈들은 비혼동거 당사자인 고령 여성들이라고 해서 다르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었음.
- 이에 비혼 동거 현황 파악 및 통계구축, 고령화와 가족다양성에 대응하여 새로운 친밀성의 포용을 위한 정책·제도 개선, 고령 여성의 경제적 자율성의 보장을 위한 정책 강화, 공적 돌봄 체계의 강화를 정책적 함의로 제시함.

1. 배경 및 문제점

- ▶ 고령화에 대응하여 최근 가족 변동의 핵심인 “관계적 속성”의 변화 측면에서 고령 여성의 삶을 들여다 보는 것은 고령사회 가족 정책 및 제도의 방향을 모색함에 있어 의미가 있음.
- ▶ 파트너 관계의 변동은 다양한 측면과 스펙트럼으로 접근이 가능한데, 특히 우리 사회에서는 법률혼 이외의 다양한 방식의 파트너관계 형성의 변화가 젊은 세대 뿐 아니라 노년 세대에서도 나타나고 있음. 특히 최근의 비혼동거 실태분석 연구(김영란 외, 2021: 117-118)에 의하면 비혼동거하는 황혼 재혼 커플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57.6%(매우 긍정적 21.6%+약간 긍정적 36.0%).
- ▶ 그러나 고령화와 가족변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우리 사회에서, 법률혼 제도 밖에서 삶을 함께하는 고령의 비혼동거 당사자, 특히 여성의 목소리를 통해 그들의 노년의 파트너 관계와 삶의 경험을 듣고 정책적 함의를 모색하고자한 시도는 아직 많지 않음.
- ▶ 이에 이하에서는 송효진·선보영·성경·정가원·박수경(2020)이 수행한 파트너관계의 변동을 경험한 고령 여성에 대한 FGI 분석 결과 중에서, 사실혼·비혼동거 당사자 고령 여성 그룹에 대한 면접조사 분석 결과¹⁾ 만을 중심으로, 고령 여성의 비혼동거로의 파트너관계 변동 경험에 따른 삶의 질 변화와 정책적 함의를 소개하고자 함.

2. 면접조사 및 분석 결과

- ▶ 면접조사는 현재 사실혼·비혼동거 관계에 있는 60-70대 여성(4인)을 대상으로 초점집단 면접 방식으로 2020년 9월 15일에 진행하였으며, 조사내용은 현재까지 살아온 삶과 앞으로의 생애전망, 파트너 관계의 변화(사실혼·비혼동거)와 삶의 질 변동, 정책 욕구 파악을 중심으로 하였음. 인터뷰에 앞서 인터뷰 결과의 활용 범위 및 개인정보보호에 대해 안내하고, 인터뷰 녹취에 관한 참여자들의 동의절차를 거쳤음.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음.

가

파트너관계와 가족생활

- ▶ 연구 참여자들은 모두 사별 또는 이혼을 경험하고 혼자 지내다 현재의 파트너와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노년의 친밀한 삶을 함께하고 있음. 연구 참여자들은 자신과 파트너의 각자 전혼 관계에서의 자녀들이 있으며, 자녀들은 모두 독립해서 살고 있다고 함.
- ▶ 참여자들의 현재의 관계의 속성은 일률적으로 “사실혼”인지, “동거”인지 “사귀는 것”인지를 구분하거나 명명하는 것은 무의미할 정도로, 삶과 관계의 모습의 스펙트럼이 다양했음. 참여자들은 자신의 파트너와 한집에서 살고 있으나, 온전히 함께 사는 경우, 참여자 자신의 집에는 자신의 자녀가 거주하고 자신은 파트너의 집으로 합가를 하여 살고 있으나 각자의 자녀들과 시간을 보내기 위해 주에 한 번 정도는 자신의 집으로 돌아와서 지내는 경우, 일주일에 3-4번 정도 외로울 때 파트너의 집에서 함께 지내며 살고 있는 경우 등, 제도를 선택하지 않은 노년의 친밀성과 관계는 유연하고 다양했음.

1) 본 이슈페이퍼는 송효진·선보영·성경·정가원·박수경(2020). 젠더 관점에서의 고령사회 가족 관련 법·제도 대응 방안 연구. 서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에서 60대-70대 여성을 대상으로 수행한 FGI 조사결과 중 사실혼/비혼동거 여성노인 그룹에 대한 면접조사 결과만을 발췌하여 수정 보완하여 소개하는 것임을 밝힙니다. 발췌하여 소개하는 사례는 동 연구 보고서 내 4케이스의 사례(16-19)를 사례 (a-d)로 연번을 재구성하여 소개하였습니다.

- ▶ <사례 a, 67세>는 자신과 파트너 모두 20년 전 이혼하고 혼자 살다 지금의 파트너와 5년 전에 만나 함께 산지는 3년 정도 되었다고 함. <사례 b, 63세> 역시 20년 전에 이혼을 하고 친구의 소개로 현재의 파트너를 만나 7년째 사실혼관계로 지내고 있다고 함. <사례 c, 77세>는 50년의 결혼생활을 함께 한 남편과 사별하고, 지금의 파트너와는 3-4년 전에 만나 사귀게 되었는데, 일주일에 3번 정도 만나 함께 지내는 사이라고 함. <사례 d, 60세>는 남편과 일찍 사별을 하고, 가게를 하던 동네에서 지금의 파트너를 만나 오랜 기간 사귀어오다 2년 전부터 파트너의 집에서 함께 살고 있으며, 자신의 집에는 자녀들이 거주하고 있어 일주일에 한번 정도는 자녀들이 살고 있는 집에 가서, 각자 자녀들과 시간을 보낸다고 함.
- ▶ 참여자들은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있는 이유를, 이미 이혼경험이 있어 더 신중하기 위해, 자녀의 결혼 후 생각해보려고, 파트너 자녀와의 재산 문제, 결혼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싶어서, 아직 혼인신고 이야기는 서로 못했다는 등 다양하고도 복잡적이었음.

우리 아저씨는 혼인신고를 하자, 하는데 제가 아직 확 얘기가, 이 나이에 참, 내내 혼자 살다가 남자를 만나서 내가 이 사람하고 함께 하겠다고 많은 지인들한테 알리기가 아직까지는 그렇더라고. ... 아직은 안 하고 싶더라고. ... 한 번 이혼했으면 됐지, 또 만났는데 이혼했다, 이 소리 들으면 안 되잖아, 이혼은 한 번으로 끝내야지. 그래서 이렇게 살고 있어요.(사례 a, 67세)

제가 아직, 준비가 덜 된 것 같고, 한 번 이혼한 것도 너무나 아픈데 또 혹시라도 모르잖아요. 자녀들이 어렵더라고요. 혹시라도 사소한 거에 오해가 생길까 봐. 그래서 제가 좀 자녀 결혼하고 난 다음에, 그게 중요한 그것 아니지 않느냐? 사후에 해도 낫지 않겠냐, 아무래도 재산 문제에 예민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사례 b, 63세)

- ▶ <사례 c>의 경우 일주일 내내 함께 사는 것은 아니고, 일주일에 3번 정도 함께 지내는데 본인은 파트너와 “사귀다”고 표현을 하며, 결혼에 얽매이고 싶지 않다고 함.

남자도 나이가 저보다 적으니까 좀 외롭지. 그러니까 어느 정도 결혼 생각이 있나 봐요. 그렇다면 다른 여자를 사귀어라. 나는 결혼에 얽매이고 싶지 않다, 일도 있고, 친구들과하고 놀기 좋아하고, 얽매이고 싶지 않아, 여행도 많이 다니고 그래요. 친구 모르게 사귀자니 보통 일이 아니에요. 거짓말을 해야 해.(사례 c, 77세)

나 사실혼·동거 후의 변화

- ▶ 연구 참여자들은 파트너와 함께 지내고 나서의 삶의 변화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음. 행복감, 외로움의 해소, 경제적 안정감, 아플 때 걱정해 주는 정서적 지지 등에 대해 이야기했음.

우리 애들이 그러더라고. 내가 혼자 있을 때는 애들이 왔다 가면 뒤가 그렇게 밝힌대요. 가면서 꼭 울고 간대요. 슬프대. 엄마 혼자 두고 가는 게. 잘 가라, 문밖에 나오잖아요. 잘 가라, 하고, 돌아갈 때까지 눈물이지. 요즘은 아저씨 계시니까. 태풍이 와도 걱정을 안 한단니까. 걱정 안 하고, 단 둘이 자겠지, 우리는 동갑이라도 체격도 크고 든든해요. 말수는 없어도 애들이 아저씨가 계시니까 우리 마음이 너무 든든하다고 하더라고.(사례 a, 67세)

제일 좋은 건 둘이 취미가 같다 보니까 그게 마음에 맞아서...(중략) 제가 요만큼만 아프다고 해도 만사를 제쳐 놓고 ..., 제가 전 남편복은 없어도, ... 내가 그나마 몇 년을 고생하다가 이 사람을 만나서 의지를 하게 되고,(사례 b, 63세)

- ▶ <사례 c>는 친밀한 관계를 통해 외로움을 해소하고 또 자신 만의 삶으로 돌아가기도 하며 어떻게 보면 젊은 세대보다 더 쿨하게 노년의 연애와 자신의 삶을 함께 추구하고 있었음.

내가 미안하지만 서로 외롭고 쓸쓸할 때는 만나고 그래서 내가 일주일 다 안 만나요. 마음이 외로우면, 시간 나면 만나자, 하고...그렇지 단지 쓸쓸해서 만났는데, 순간적으로 그때는 재미있으면 그때 순간, 돌아서면 잊어버려.(사례 c, 77세)

- ▶ 연구 참여자들은 파트너와 함께 하는 지금의 생활이 혼인신고를 한 결혼생활과는 다른 점들을 이야기했음. 참여자들은 시집과의 관계에서의 홀가분함과 자유로움을 먼저 이야기했음. 결혼제도 안으로 들어가지 않는 것은 가부장적인 가족문화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로울 수도 있음을 보여줌.

옛날에 혼인신고를 하면 시댁 가서 일을 했잖아요. 근데 지금의 그 개념이 달라진 것 같아요. 이번 제삿날도 나 힘들어 시장가서 사다가 얹으면 안 될까? 니가 할 수 있는 나물만 하고 사다 놓으라고 해. 그래서 그렇게 해요. 정식으로 시어른들이 안 계시니까 그쪽에 갈 일이 없으니까(사례 d, 60세)

결혼했다고 하면 저 내 족쇄가 채워지는 거지. 김씨는 김씨 집에 가서 완전히 다 해야 하는 거야. 헌신을 다 하고, 죽으라고 하면 죽는 시늉도 해야 하지. ... 안 한 것과 또 틀려요.(사례 c, 77세)

- ▶ 한편으로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 관계의 자유로움은 있지만 결혼하지 않은 커플이 우리 사회에서 서로를 대외적으로 편안하게 소개하기에는 아직은 불편함이 있다고 함. 참여자들은 파트너와 함께 사는 것을 자녀와 아주 가까운 친구 정도만 알고 있다고 하는 경우들이 대부분이었음.

땀땀하게 인사를 못 시키지... 남편자리에 두각시키는 건 어렵고(중략) (만남이나 헤어짐도) 그건 자유롭죠. 너는 니대로, 나는 나대로 가면 되잖아요, 도장 찍은 게 없으니까. 자유롭겠지만 어디 데리고 가서 이 사람이 내 남편이다, 하기가 내 마음이 좀. 여기는 객지니까, ... 모르잖아요. 동거중이요, 하고 다닐 일이 없고. 동네사람들과 잘 안 만나니까 상관이 없는데, 고향 사람들이라든지 친구들도 아는 친구들만 우리가 산다는 걸 알지, 몇몇 두세 명 알지, 다른 사람들은 아직은 사귀다고만 알지, 함께 산다고 말 안 하고(중략) 남이 알아줘야 하는 거지. 저 나이에 붙어산다, 말 자체가 다르잖아요. 정식 부부가 됐다는 것과 동거생활을 한다는 것과. 나는 옛날 사람이라 그런지 부끄러운 일이지. 그래서 쉬쉬하고 숨기는 거예요. (사례 a, 67세)

- ▶ 관계에서의 불평등성은 혼인신고 여부만의 문제도 아니라는 의견도 있었음.

대개 보면 남자들은 단순해. 여자가 음식 잘해 주면 좋아하고. ...음식 배불리 잘해 주면 좋아하고. 부부관계 잘 해 주면 좋아하고, 자존심 상하지 않게 잘 해 주면 돼. 남자는 세 가지만 잘 해 주면 돼. 자존심을 가장, 자기 무시하는 소리 한다거나 하면 거기서 들어지는 거요. 남자들이 잘 빠져요. 남자들이 자존심이 상하니까 잘 빠지고 며칠간 말 안 하는 것도 있어요. 가만히 보면 저런 걸 보고 살아야 되나? 뭐든지 여자한테 안 지려고 하고, 어떤 때 그렇게 하는 걸 보면 기가차서.(사례 c, 77세)

다 생계와 경제적 관계

- ▶ 연구 참여자들은 딸들로부터 생활비를 매달 받고 있다는 <사례 c>를 제외하고는 매달 함께 사는 파트너로부터 주로 생활비를 받고 있었음. <사례 c>의 경우 자신의 자녀들로부터 자신의 생활비를 받고 파트너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식비나 외식비 정도는 자신이 내기도 하고 파트너가 비용을 결제 하고 하여 적절히 분담을 하고 있으나, 다른 참여자들의 경우 매달의 생계비에 있어 파트너와 분담을 하고 있는 사례는 없었음. 자녀에게든 파트너에게든 생계에 있어 가족 의존성은 높았음.

(파트너가)생활비 300을 주지만 정말 안 들어요. 그래서 200씩 저축을 하고 있어요. 그걸 그 사람이 아는 것 같아.(사례 b, 63세)

저는 딸이 다섯이니까 통장에 아예 달만 되면, 20일만 되면 돈을 자기들이...자동이체를 해줘요. 그렇게 습관을 들여 놔여. (중략) (서로의 수입 이야기는) 안 하는데 대강은 알지. 돈으로 따지고 다 그러면 서로 창피하니까 있으면 있는 대로 쓰고, 완전히 결혼한 것 같으면 너 재산이 얼마구나, 내놔 봐라, 나는 현재 집이 이거밖에 없으니 너는 얼마냐, 이렇게 따지고

물어보면 되는데, 그렇게까지 결혼 생각을 안 하니까 ... 서로 오늘 만날까? 그래, 몇 시에. 자기가 돈 쓰고, 어쩌다 보면 비싼 데 가면 주저주저하면 내가 카드 따로 있으니까 쓰고. 경비는 둘이 그렇게 많이 안 들어요.(사례 c, 77세)

- ▶ <사례 b>는 7년째 지금의 사실혼 배우자와 함께 살면서 큰 갈등은 없었고 지금 살고 있는 집 전세도 자신의 이름으로 해주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지만 재산에 있어 사실혼 배우자의 아들이 자신을 대하는 태도에는 서운함과 갈등을 느낀다고 함.

그쪽 집 아들이 며느리와 사람은 다 좋은데, 욕심은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혼인신고를 안 하고, 아버지가 살아 있을 때는 어떻게 하셔든 된다, 경제권이 아버지가 있으니까. 근데 당신이 아이들을 다 집을 하나씩 마련해줬어요. 그리고 미리 정리를 하는 거야. 내가 나오는 연금이나 당신이 갖고 있는 돈에 대해서 터치하지 말아라. 나는 이후에는 어떤 것도 너네들한테 줄 수 없다고 공표를 했는데도 아들이 아닌 거야. 그 인정을 안 하고... 돈이 무섭더라. 제가 아무 것도 가진 게 없었으면 눈물이 났을 것 같아요. (사례 b, 63세)



노후의 삶의 전망과 정책욕구

- ▶ 연구 참여자들은 현재의 파트너와의 삶 이전에 사별과 이혼 후의 혼자 지내던 경험이 있고, 자녀를 키우며 생계를 혼자 책임져온 경험이 있는 경우도 있음. 이들은 자신들의 노후의 삶에 대해 ‘그동안 열심히 살았다, 즐기고 싶다’는 바람으로 이야기하였음.

나는 지금 내가 나이가 60인데, 그러면 나는 어설픈 식당에서 밥 먹고 싶지 않아요. 내 생활에 맞게 밥도 먹고 싶고, 길거리, 분식도 안 먹고 싶고, 옷도 이제는 입고 싶어요. 사치라고 누군가는 말을 할 수 있겠지만, 나는 내가 열심히 산 대가라고 생각해요.(사례 d, 60세)

취미생활을 공유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결과가 이어지더라고요. 건강하면서 취미생활을 같이.(사례 b, 63세)

- ▶ 연구 참여자들은 현재는 파트너와 외로움 해소, 일상의 돌봄, 정서적 지지를 함께 하고 있으나, 노후에 자신이 또 파트너가 아파서 돌봄이 필요한 상황이 되었을 경우에 파트너로부터 돌봄을 받거나 자신이 돌봄을 제공하는 것은 부담스러워했음. 참여자들은 자신의 자녀에게도 파트너에게도 서로가 부담이 되는 것은 원치 않았음. 노후의 돌봄은 개인이 떠맡기보다는 공적 돌봄체계의 도움을 받기를 희망했음. 그러나 이들이 경험상 상상할 수 있는 공적 돌봄체계는 시설이라는 한계도 엿볼 수 있었음.

나는 공공시설로 갈 거예요. 요양원으로 가야죠. 자식도, 이 사람한테 해를 줄 필요 없잖아요. 돈이 아주 많으면 하겠지만 그렇지 않고는 공공시설, 요양원으로 가야죠. 뭐 이 사람한테 똥 받으라고 하겠어? 자식한테 왜 해를 끼쳐?... 나 역시도 그 사람이 그렇게 되면 요양원으로 보내요(사례 a, 67세)

- ▶ 참여자들은 자신의 부모에 대한 간병·돌봄에 대한 직·간접 경험이 돌봄에 대한 부담감에 영향을 주었음을 이야기하였음. 돌봄에 대한 생각은 그 관계가 혈연이나 결혼 여부, 친밀성의 정도가 전적으로 좌우한다기보다는 개인이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로 인식할 때 부담을 매우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었음.

내 부모도 아파 보니까 길게 아프면 결국 서로 얘기가 돼서 그렇게 보내더라고요. ... 나는 살림을 안 살아봤는데, 친정 엄마가 그렇게 우리 애들 키우고 우리 살림 살다가 돌아가실 때 4년을 아파서 있었는데, 세월이 가니까 지치더라고요. 엄마 뱃속에서 낸 부모도 지치는데 남편이 어찌 안 지칠 수가 있어요? 나도 지쳤는데, 자식이 어떻게 안 지치겠어요. 나는 각오하고 있어요.(사례 d, 60세)

- ▶ 연구 참여자들은 파트너와의 관계에서 노후에 경제적으로 크게 기대하지는 않는다고는 말하지만, 내심 걱정되거나 신경이 쓰이는 점들도 이야기하였음. 노후에 파트너의 재산을 상속받거나 하는 기대를 하지도 못하고, 파트너의 자녀와 재산을 두고 서운한 감정을 느끼는 사례도 있는 등 파트너 관계를 바탕으로 노후의 경제적 안정성이나 주거 안정성을 기대하기는 어려워보였음. <사례 a>의 경우 자신과 파트너 모두 경제적 여유가 없어 노후도 걱정이고, 경제적 여유가 없다 보니 책임을 진다는 것, 혼인신고를 하는 것은 부담스럽다고 함.

연금 넣고 하나씩 이래저래 따져보니까 이 사람이 나를 버린다고 해도 그걸로 수준에 맞춰서 살지.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이제는 연금 받고, 날 버린다고 해도 거기 맞춰서 살 거지, 더 이상 일하고 싶지는 않아요. (중략) 저는 지금 생각에 그래요. 그분이 사업체를 아직도 하고 있으니까, 저는 아까 그랬어요. 나는 마음 다 내렸다고, 저는 열심히 살고, 그분 주는 걸로 생활 열심히 하고, 노후에 그 정도 가지고, 만약 나랑 어떻게 헤어진다고 해도 그렇게 지낼 것이고, 그러는데, 그분의 사업체에 대해서 내가 지랑 헤어질 때 얼마를 해 줄까, 같이 혼인신고를 살다가 그분 재산에 몇 %라도 받을까, 저는 아예 생각이 없어요. 나는 내 거 가지고. (사례 d, 60세)

모든 것이 돈 아닙니까? 저는 제가 사업을 하고 망하고, 제가 가진 건 없으니까, 경제적으로 풍부할 때 서로가 아프면 그나마 돈이 있으니까 괜찮겠지만 지금 서로 없는 상태에서 이 사람도 지금 사업자금 조금 가지고 있고, 아파서 아무 것도 못했을 때 따라오는 경제적인 데미지가 크죠. 그러면 장병에 효자 없다고 내가 과연 추스릴 수 있을까? 저 사람도 추스릴 수 있을까? 그게 쌓이니까 걱정이 되죠. 그래서 혼인신고를 생각을 못하지. (사례 a, 67세)

- ▶ 참여자들은 고령 정책에 있어서는 특히 노인 일자리에 대한 바람을 이야기하였음. 여성들도 자기 일이 있어야 남자만 바라보지 않고, 나이 들어도 일할 수 있으면 일을 해서 수입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이야기하였음. 이는 전반적으로 생계에 있어서 파트너든 자녀든 가족의존성이 높은 고령 여성의 현실과, 비혼동거 파트너와의 관계의 지속이 노후의 경제적 안정성을 보장하지 못함을 느끼고 있기 때문으로 보임.



소결

- ▶ 이상의 분석 결과를 정리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 비혼 파트너와의 관계의 스펙트럼은 다양하게 나타남. 사실혼과 동거를 명확히 구분하기도 어려웠고, 함께 살면서 일주일에 한번은 각자의 집에서 자녀를 만나는 사례, 일주일에 3번 정도만 함께 지낸다는 사례도 있었음. 혼인신고하지 않는 사유는 강한 구속의 부담, 자녀 등을 고려해서 등 다양하고 복잡적이었음.
- 노년의 비혼동거에 생활에 대해, 참여자들은 함께하는 삶에 대한 만족감을 나타냄. 외로움의 해소와 친밀성, 그리고 아플 때 서로 걱정해주는 정서적 지지와 노년에 취미를 함께 하는 생활은 노년의 삶의 질에 긍정적으로 작용함.
- 그러나 주변의 시선, 편견적 인식으로 자신들의 관계를 사회적으로 드러내지는 못하고 있음.
- 비혼 동거 관계 있는 여성들 역시 독립적인 경제적 기반과 소득보장이 취약한 우리나라 고령 여성 일반에게서 나타나는 현상과 다르지 않게 경제적으로 높은 가족(파트너이든 자녀이든) 의존성을 보임. 비혼 동거관계의 경우 파트너 관계 해소(파트너 사망 포함)시 노후의 경제적 안정을 기대하기는 어려움. 재산관계에 있어서는 파트너의 자녀 등과 불편한 지점이 있다는 사례도 있었고, 혼인신고를 하지 못하는 사유로 작용하기도 함.
- 노후 돌봄에 대한 고민 역시 개인이 떠맡는 것에 대한 부담과 공적 돌봄 지원제도의 도움을 받기를 희망하고 있음. 함께 하는 삶에서 서로 친밀함과 정서적 지지, 일상의 돌봄을 주고 받지만, 결국 노후 돌봄의 문제는 관계의 친밀성만으로 개인이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인식이 강했음.

3. 정책적 함의

- ▶ 이와 같이 노년의 비혼동거하는 삶은 관계에 있어서도 다양한 스펙트럼으로 나타나고, 그 사유도 다양하고 복합적임. 연구참여자들은 결혼하지 않고서 노년에 파트너와 함께 하는 삶의 긍정적인 영향을 이야기하고 있음.
- ▶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들의 진술에서 주위의 시선과 편견으로 관계를 드러내지 못하는 점, 제도적으로 보장이나 지원이 되지 않는 불안정성으로 인한 노후의 불안을 살펴볼 수 있었으며, 그리고 경제적으로 높은 가족의존성, 개인이 부담하기 어려운 돌봄의 문제라는 고령 여성이 경험하는 주요 이슈들은 비혼동거 당사자인 여성들이라고 해서 다르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었음.
- ▶ 이러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정책적 함의를 정리해볼 수 있음.
 - 고령화와 가족다양성의 변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우리 사회에서, 비혼동거 고령층의 비중은 현재도 적지 않을 것으로 추측되고, 앞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현황 파악도 되지 않고 있고, 통계구축도 되지 않고 있음. 따라서 우리 사회의 가족변화 현상을 반영하여 비혼동거 관련 통계를 구축하여 정책의 기초자료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사회의 변화는 역동적이지만, 비혼동거에 대한 편견적 인식은 여전히 문제임. 연구참여자들은 비혼 파트너와의 관계와 함께 하는 삶에 대한 매우 긍정적이었으나, 자신들의 비혼동거 관계를 사회적으로 편안하게 드러내지 못하고 있었음. 가족다양성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고 있으나 편견과 차별,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정책적 노력이 지속되어야 함.
 - 법률혼이 아닌 제도 밖의 상대적으로 느슨하고 부담없는 비혼동거 관계는 그만큼 노년의 당사자들에게 관계의 진입이 용이하고 매력적이지만, 정책과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어, 당사자 보호와 정책지원에 있어 취약함. 정책에 있어서도 고령층 비혼동거 가구는 노인 1인 가구를 대상으로 한 정책에서도, 법률혼 부부가 아니어서 건강가정기본법상 가족에 해당하지 않아 가족정책의 대상에도 포섭되지 못함. 이들 비혼동거가족을 정책대상에 포섭할 수 있도록 가족정책의 기본법인 건강가정기본법의 개정이 시급함. 또한 제도적 지원과 권리보장이 가능하도록, 법률혼 중심의 가족범위의 한계를 넘어 포용적이고 유연하게 가족 관련 법제의 방향을 모색하여야 함. 협소한 가족범위를 규정하고 있는 민법을 개정하고, 새로운 친밀성을 지원하는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와 함께, 일상의 생활에서 서로를 대리하여 돌봄, 의료 관련 등의 사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제도적 환경을 제공하고, 유연제도·신탁제도의 활용 제고를 위한 노력도 필요함.
 - 생애 전반에 걸쳐 누적된 여성의 불안정한 소득과 경제적 기반은, 노년의 파트너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경제적 의존성으로 연결되지만, 법률혼 배우자에 보장되는 제도적 보호 장치는 기대하기 어려움. 무엇보다 근본적으로는 여성이 노년까지 경제적 자율성과 독립성을 기반으로 파트너 관계를 대등하게 형성할 수 있는 물질 기반이 취약함. 이를 해소할 수 있도록 고용, 사회보장 등 다각적인 측면에서의 정책적 노력이 지속되어야 함.
 - 돌봄은 고령 여성에게 있어서는 돌봄자로서의 부담과 자신이 돌봄이 필요할 때는 정작 가족에게 부담을 지우고 싶어하지 않거나, 또는 도움받기 어려운 이중의 어려움으로 다가옴. 개인이 감당하기 어려운 노년의 돌봄의 문제는 두터운 공적 돌봄 체계의 세심한 접근이 필요함. 더욱이 돌봄에 따른 각종 공제나 보장·제도의 이용·정책지원에 있어, 현행의 가족제도 밖에 있다는 이유로 비혼동거 가족에게 불이익과 소외가 발생하지는 않는지, 문제를 들여다 보고 정책적·제도적 보완점을 발굴하여 개선해 나가야함.

참고자료

송효진·선보영·성경·정가원·박수경(2020). 젠더 관점에서의 고령사회 가족 관련 법·제도 대응 방안 연구. 서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김영란·주재선·정가원·배호중·선보영·최진화·김수진·이진숙(2021). 비혼동거 실태 분석 연구-2020년 가족실태조사 부가 연구-. 여성가족부.

주관부처: 여성가족부 가족정책과
관계부처: 여성가족부 가족정책과